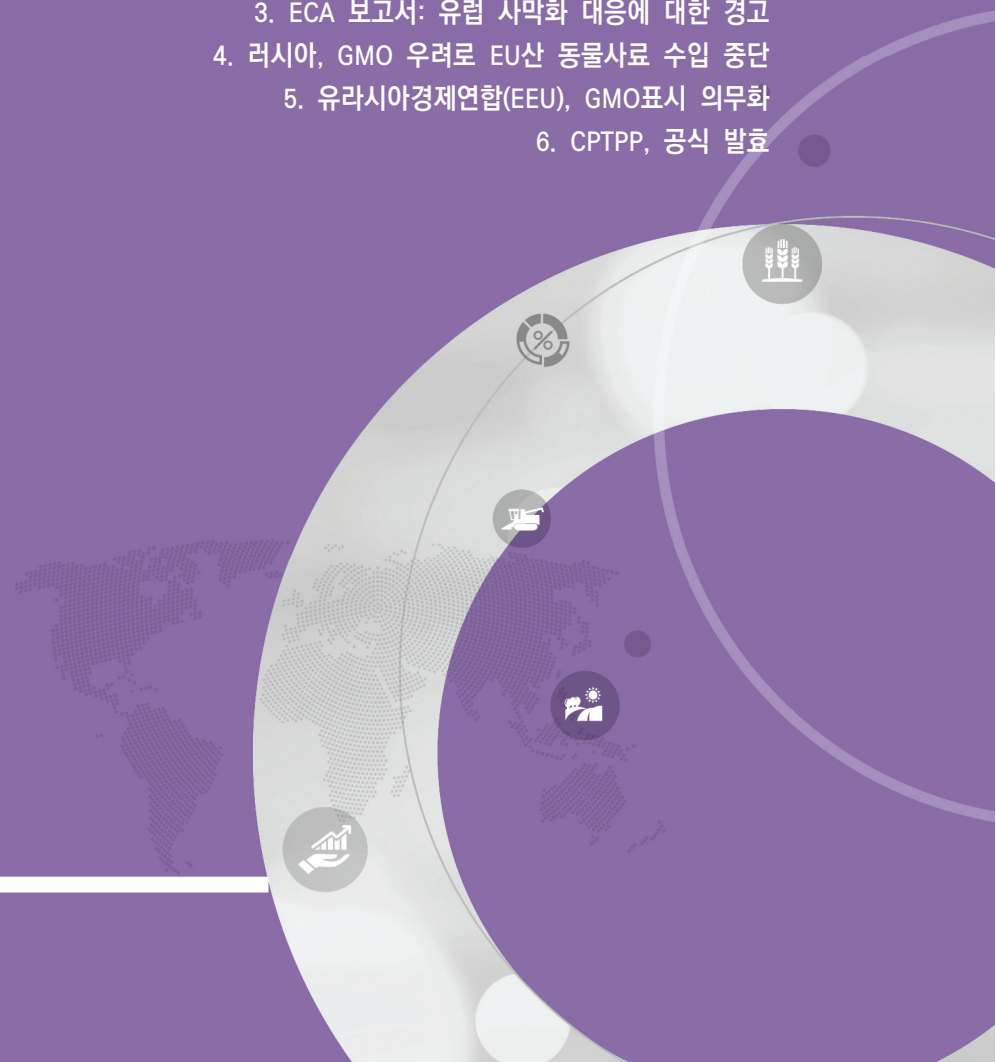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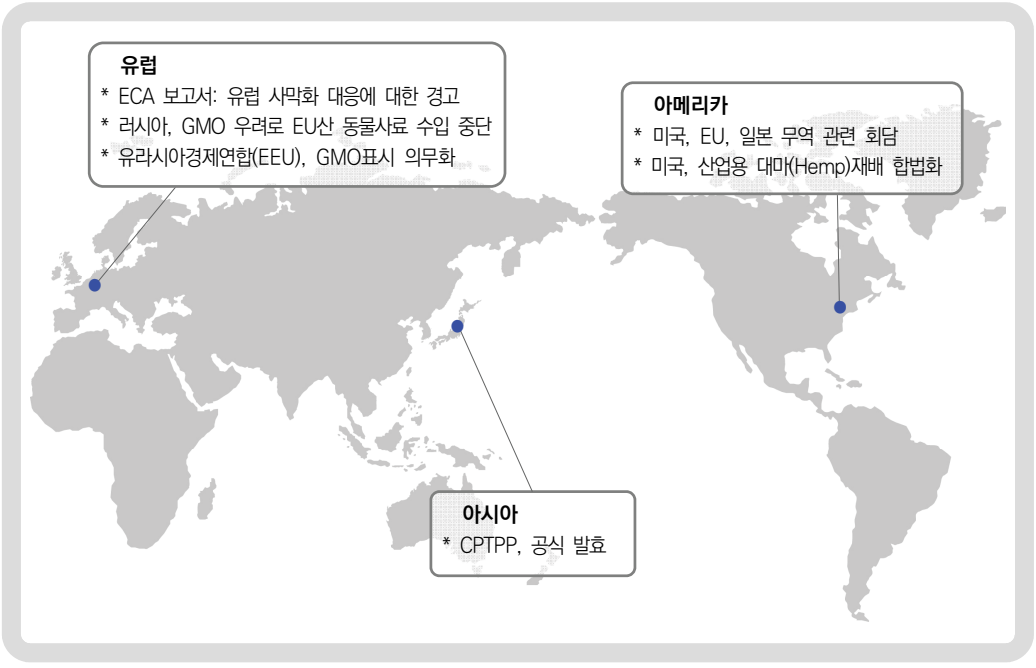
Part 5
국제 농업 정보

1. 미국, EU, 일본 무역 관련 회담
2. 미국, 산업용 대마(Hemp)재배 합법화
3. ECA 보고서: 유럽 사막화 대응에 대한 경고
4. 러시아, GMO 우려로 EU산 동물사료 수입 중단
5. 유라시아경제연합(EEU), GMO표시 의무화
6. CPTPP, 공식 발효





국제 농업 정보 (2019. 1)



미국, EU, 일본 무역 관련 회담

❑ 미국, EU, 일본 무역관계자 3자회담

❍ 2019년 1월 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3자회담에서, 미국, EU, 일본의 주요 무역 관계자들은 다른 국가들의 비(非) 시장정책 및 관행에 관한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anization, WTO) 회원국들과 해당 주제 및 기타 논제에 대해 참여할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tve, USTR) Robert Lighthizer, EU 무역위원장 Cecilia Malmström, 일본 무역부 장관 Eros Hiroshige Seko는 진행 중인 3자

무역정책 회담의 일환으로 다섯 번째 회동을 가졌음.

-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회동에서 각 대표들은 '제3국의 비(非) 시장 지향적인 정책 및 관행'에 관한 공동 목표를 논의하였음.
- 무역 대표들은 비(非)시장 지향적인 관행은 심각한 생산과잉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와 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조건을 만들며, 혁신 기술 개발과 사용을 저지하며, 현행 규정이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국제 무역의 적절한 기능을 저해한다고 언급함.
- 이들은 구체적으로 시장 지향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추가 기준 확인을 위한 방법을 살펴본 후, 시장 지향적인 조건은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세계 무역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되풀이했음.
- 3자 무역 상대국들은 다른 주요 WTO 회원국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올 봄까지 산업 침체에 관한 주제의 3자 회담을 마무리 짓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였음.

❍ 특정 시장, 특히 철강부문에서의 세계적인 생산 과잉 문제는 3자 회담을 개최하게 된 하나의 추진력이었음.

- 중국은 이들에 의해 특별히 언급된 적은 없지만 생산 과잉과 산업침체 문제에 대한 강조는 3개국이 철강부문 정책에 관하여 중국을 비판하는 핵심문제임.

❑ 기술 이전, WTO 개혁

❍ 강제적인 기술 이전 문제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무역 대표들은 '집행, 새로운 규정 개발, 국가 보안을 위한 투자 검토, 수출 통제'에 관한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음.
- 미국과 EU는 현재 WTO에서 강제 기술 이전에 관하여 중국에 대항하고 있음.
- 이 문제는 미국이 최근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구실이었으며, 이는 양국 간 지속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시켰음.

❍ WTO 개혁을 위한 노력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3개국은 11월에 WTO 상품무역이사회(WTO 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제출된 공동 투명성 및 통보 제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무역 상대국과의 약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이들은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미래의 WTO 협상에 관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는 선진 WTO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되풀이했음.
- 이와 같은 발언은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이 미국, EU,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보다 WTO 약속의 이행이 적음을 의미함.

❑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력 약속

❍ 마지막으로 각국 무역 대표들은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과 데이터 보안 증진을 통해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이들은 가능한 한 많은 WTO 회원국들의 참여와 함께 높은 수준의 협약 체결을 위해 주시하며, 전자 상거래 관련 무역 측면에 대한 WTO 협상을 시의 적절하게 시작하기 위한 지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음.
- 3개의 무역 상대국들은 이번 6월 일본 쓰쿠바에서 개최될 G20 무역 및 디지털 경제장관회의(G20 Ministerial Meeting on Trade and the Digital Economy)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협력을 약속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886/Trade-officials-from-US-EU-Japan-focus-on-nonmarket-oriented-economies) (2019.01.11.)

미국, 산업용 대마(Hemp)재배 합법화

❍ 미국 도날드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20일, 향후 5년간(2019~2023년도) 농업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농업법(Farm Bill) 개정법안에 서명함.

- 12월 11일 상원에서는 찬성 87, 반대 13으로 가결되었고, 다음날 12일 하원에서는 찬성 369, 반대 47로 가결되었음.

❍ 법안에서는 산업용 대마(Hemp)의 대규모 재배를 합법화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미국 연방정부는 대마를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산업용 대마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농업법에 따라 위법약물이 아닌 것으로 합법화되면 농작물보험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Mitch McConnell 대마가 풍부한 주인 켄터키 출신이며, 대마 합법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음.
- 그는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중 산업용 대마재배의 합법화는 농가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대마 산업 합법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2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연구목적으로 대마 재배를 합법화하는 농업법 개정안에 서명을 한 바 있음.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9/01/8409093a112551d3.html)
(2019.01.07.)

ECA 보고서: 유럽 사막화 대응에 대한 경고

❑ 유럽 사막화 대응에 대한 경호

❍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막화는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EU의 사막화 대응은 불충분하며 일관적인 접근법이 부족함.

❍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 남유럽에서 기온증가와 가뭄, 강수량 감소 현상을 보이며, 금세기 동안 EU의 사막화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의 영향은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연구보고서 'EU 사막화 대응: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위협의 증가(Combating desertification in the EU: a growing threat in need of more action)'에 따르면 "남부 유럽의 기후가 온대기후에서 건조기후로 변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뜨거운 반사막지대(semi-deserts)가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북쪽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함.

- 남부 유럽 일대는 종종 토양 침식, 염화, 토양 유기 탄소 손실, 생물의 다양성 감소, 산사태 등의 영향을 받고 있음.

❍ ECA 보고서는 사막화를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EU차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요약하고 있음.

- 또한 공기나 물과 같은 기타 주요 환경 자원에 대해서는 EU의 다양한 지침과 규정 하에 관리되고 있는 반면 토양에 대해서는 EU의 통합된 법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경고함.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06년 9월, 토양 붕괴 과정이 궁극적으로 사막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토양 보호를 위한 전략(Thematic Strategy for Soil Protection)에 관한 주제를 채택한 바 있음.

- 해당 전략의 목적은 토양 퇴화를 방지함으로써 토양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었음.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013년 4월, 2013년 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2013 EU Adaptation Strategy for climate change)을 채택하여 회원국들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였음.

- EU가 불가피한 기후 영향과 경제 및 환경, 사회적 비용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강조함.
- 2013년부터 EU Forest Strategy는 산림이 농촌 개발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산림은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또한 다양한 EU기금을 사용하여 사막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ECA에 따르면 농촌개발, 녹색화, 상호준수 구성 요소를 갖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시행은 농업 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집약적이거나 지속 불가능한 농업의 관행은 토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18년 6월, EU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가 작성한 세계 사막화 지도(World Atlas of Desertification)는 지구 대부분의 토지가 황폐화되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작물 수확량(일부 지속 불가능한 농업의 관행에 의해 생산됨)의 10%만큼 감소시킬 위협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또한 EU 영토(1,400만 헥타르) 중 8%(특히 남부, 동부, 중부 유럽)가 사막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3개 회원국(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함.

❍ ECA는 EU 정책 입안자들의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권고안을 제시함.

- ECA는 사막화 위험과 관련하여 EU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발견함.
- EU 내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 현상을 평가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론이 없음.
-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EU집행위원회는 EU의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에 관한 결정적인 평가를 위한 분석을 하지 않고 있음.

❍ EU집행위원회의 권고사항들 중 ECA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권고함:

- EU의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에 대한 이해 개선: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과 협력하여 (a)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세 가지 지표와 함께 EU의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정도를 평가를 위한 관련 지표와 방법론을 수립하여야 함.
- 토양에 관한 EU의 법적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평가: EU집행위원회는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EU전역의 토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현행 법적 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함.

- 2030년까지 EU의 토지 황폐화 중립성 달성
- EU집행위원회는 (a) 2030년까지 EU의 토지 황폐화와 중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을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훌륭한 관행의 보급을 포함하여 EU의 토양 보존과 토지 황폐화 중립성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측면의 지침을 회원국들에게 제공함.
- 그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국 수준의 목표에 관한 조치, 명확한 계획, 중간보고 계획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 중립성 달성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수립을 위해 EU회원국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796/ECA-report-warns-EU-is-not-doing-enough-on-desertification) (2019.01.04.)

러시아, GMO 우려로 EU산 동물사료 수입 중단

❑ 러시아, EU산 사료 수입 중단

❍ 러시아가 GMO에 대한 우려로 EU의 3개 사료공급업체로부터 수입되는 동물사료 제품의 수입을 중단함.

❍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GMO에 대한 우려로 벨기에의 Versele-Laga, 이탈리아의 Farmer SpA, 네덜란드의 Sloten BV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이는 2018년 12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음.
-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은 Versele-Laga(벨기에), Farmer SpA(이탈리아), Sloten BV(네덜란드)에서 공급된 제품에서 신고 또는 등록되지 않은 GMO 성분(undeclared and unregistered GMO components)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힘.

-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에 따르면 특히 벨기에 Versele-Laga는 말 사료 제품(Cavalor Action Pellet)과 관련이 있으며 이탈리아의 Farmer SPA는 돼지 사료(Vital Forte), 그리고 네덜란드의 Sloten BV는 사료첨가제(Milkivin)와 관련이 있음.

※ 자료: IEG Policy
(https://iegpolicy.agribusinessintelligence.informa.com/PL218816/Russia-bars-imports-from-three-EU-feed-suppliers) (2019.01.03.)

유라시아경제연합(EEU), GMO표시 의무화

❑ 유라시아경제연합 GMO식품 표시 의무화 규정

❍ 2018년 12월 26일부터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EU)[1] 지역 내 유통되는 식품 중, 유전자변형작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함.

❍ 제품포장 라벨링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정 'Technical Regulations of the Customs Union 022/2011(Food products in terms of labeling)' 제4조제11항에서 0.9%를 초과하는 GMO성분을 포함하는 식품에 대해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정에 따른 품질기준에 대처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EAS'표시와 함께 동일한 형태와 크기로 'GMO'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추가됨.

❍ 기존 생산자에 대해서는 같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결정(2018년 5월 10일 제 72호)에 따라 이행기간이 18개월간으로 설정되어 있음.

❍ 러시아에서는 지역 내 GMO 경작 및 사육 금지, GMO 종자 수입제한 등을 규정하는 GMO 금지법이 지난 2016년 6월 제정되었으며, 2017년 5월 GMO조사법이 제정된 바 있음.

1) 서유럽 국가 중심의 유럽연합(EU)에 대응하는 기구 창설을 위해 러시아가 중심이 된 옛 소련권 국가들의 연합체임. 러시아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의 독립국가연합(CIS) 내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자료: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18/12/81ee53e591373128.html)
(2019.12.28.)

CPTPP, 공식 발효

❑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발효

❍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공식 발효함.

- 이 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일본과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임.
-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고 지역 내 인구가 5억 이상인 새로운 경제권이 됨.
- 신협정은 참가 11개국 중 국내 회의승인 수속 등을 마친 멕시코, 일본, 싱가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6개국 지역 내 상용됨. 2019년 1월 14일 베트남도 추가될 예정임.

❍ 주요 협상논제이던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수준이나 유제품의 저관세수입건은 당초 미국을 포함한 TPP협정 수준을 유지하며 재협상 움직임이 불투명한 채로 발효됨.

- 각국 각료들은 1월 19일, 일본에서 첫 번째 TPP위원회의에 참여하여 참가국 확대에 따른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CPTPP가 발효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약 53% 관세가 즉시 철폐됨.

-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품목은 4월부터 2년차가 되는 수준으로 적용됨.
- 쇠고기는 현재 관세율 27.5%(호주산 냉동은 26.9%)로 4월부터 전부 26.6%로 내려감.

❍ CPTPP 발효 이후 신규 참가국 동향이 주목됨. 참가 규정 및 결정은 CPTPP 협정

최고의사결정기관 TPP위원회에서 담당함.

- 신규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는 TPP위원회에 통지하며, 체약국이 동의하면 작업반회의 개최하여 분야별 실무적인 교섭을 진행함.
- 첫 번째 참가 후보국은 태국으로 일찍이 참가 의향을 나타낸 바 있음.
- 태국은 쌀, 닭고기, 설탕 등의 주요 수출국임.

※ 자료: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p46305.html) (2018.12.31.)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